

# KIA '최원준 결승포'...KT 꺾고 2연승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최원준의 결승 홈런과 투수진의 호투를 내세워 2연승을 달성했다.

KIA는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벌어진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연승에 시동을 건 KIA는 시즌 8승째(10패)를 거뒀다.

반면 3연승이 무산된 KT는 시즌 8패째(9승 1무)를 당했다.

이날 경기의 유일한 득점은 KIA 최원준(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7회 1점에 승리를 안기는 1점 홈런(시즌 2호)을 터트려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KIA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은 6이닝을 5피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의 디딤돌 역할을 해냈다.

승리는 두 번째 투수로 나서 1이닝을 깔끔히 정리한 조상우(2승 1패 4홀드)가 챙겼다.

KT 선발 마운드를 지킨 고영표는 6이닝 3피안타 1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으나 승리와 연을 맺지 못했다. 한 경기 개인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2018년 5월 24일 광주 KIA 전, 2021년 10월 28일 수원 NC 다이노스전)을 작성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최원준에게 홈런을 허용한 KT 원

1-0으로 승리...시즌 8승·7위로 올라

KIA 네일 6이닝 무실점 호투...정해영 5세이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최원준.

상현은 시즌 첫 패배(4홀드)를 떠안았다.

양 팀 선발 투수들은 양보 없는 명품 투수전을 펼쳤다.

1회 2사 1, 3루 위기를 넘긴 네일

은 2회초 황재균과 배정대, 장준원을 연거푸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괴력을 발휘했다.

2회말 선두 타자 변우혁에게 안타를 맞은 고영표는 나머지 세 타자에

게 출루를 허락하지 않았고, 3회말은 삼자범퇴로 매듭지었다.

4회 두 투수는 위기관리 능력을 뽐냈다.

4회초 강백호와 장성우에게 각각 2루타, 볼넷을 내준 뒤 황재균에게 안타를 허용해 1사 만루에 몰린 네일은 배정대를 헛스윙 삼진, 장준원을 유격수 땅볼로 봉쇄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고영표는 4회말 최형우에 안타, 패트릭 위즈덤에 볼넷을 내줘 무사 1, 2루 고비에 처했으나 변우혁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후 최원준을 1루수 땅볼, 김태군을 중견수 뜬공으로 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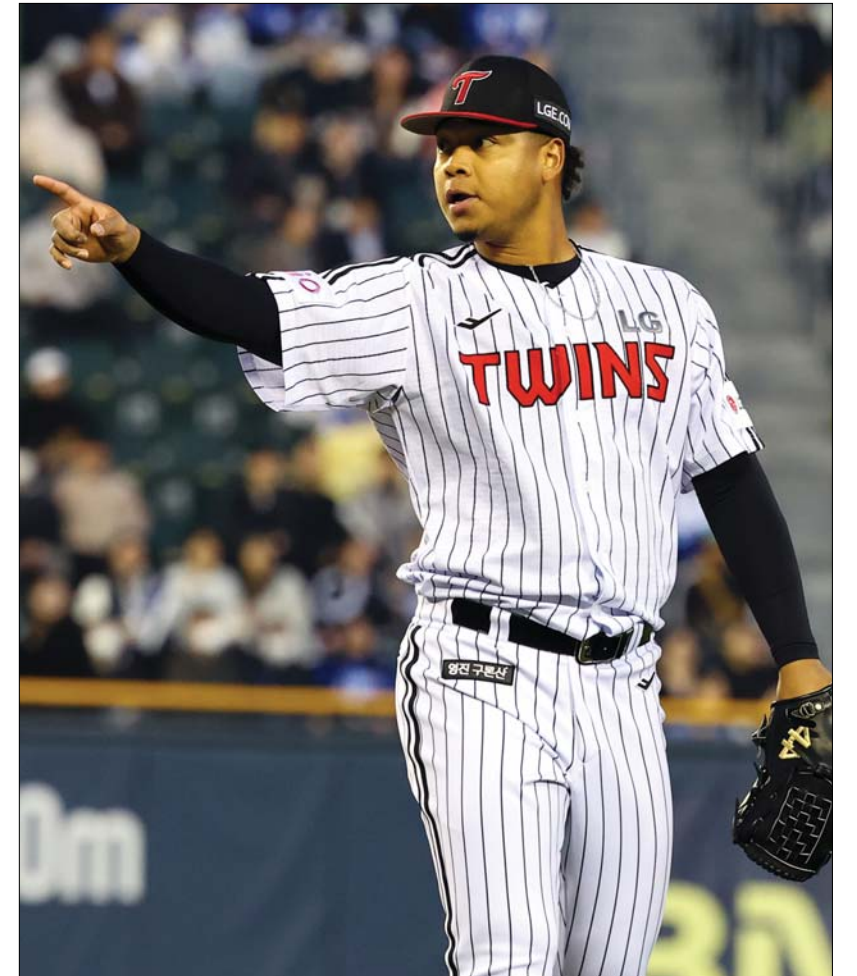
KIA는 고영표가 마운드를 내려가 자마자 침묵에서 벗어났다.

7회말 선두 타자로 등장한 최원준이 오른손 구원 투수 원상현의 초구 직구를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우위를 점한 KIA는 8회초 원본 볼펜 투수 최지민을 기용해 실점 없이 막아냈고, 9회초 마무리 투수 정해영을 내세웠다.

정해영은 장성우를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했고, 황재균과 최성민을 연이어 땅볼로 유도해 리드를 지켜냈다. 시즌 5번째 세이브(1패)를 수확했다.

/뉴시스



6이닝 무실점 LG 에르난데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 대 LG 트윈스의 경기, LG가 삼성에게 3대0으로 승리한 후 LG 선발 에르난데스가 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 생활체육대축전 생물테러 대응 강화

전남도, 보호장비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검사 실습까지

전라남도도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안전하고 성공적 행사 지원을 위해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 보호복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검사 실습 등을 지난 15일 도청에서 진행했다.

생물테러는 사회혼란 등을 목적으로 탄저, 두창, 보툴리눔 독소 등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살포하는 테러다. 소량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훈련에는 전남도 및 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보건소 담당자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훈련 내용은 생물테러 감염병별 특성과 접촉자 및 노출자에 대한 조치방법, 생물테러 9종을 신속 검사할 수 있는 다중탐지키트 사용법, 생물테러 의심 현장 출동 등이다.

또한 보호장비 전문가를 초청해 공기호흡기·골전도헤드셋·무전기 착용 전 상태와 착용 요령, 장비관리 방법, 보호복 착·탈의 등을 실습했다.

전남도는 향후 나주에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해 대규모 생물테러 훈련을 하고, 10개 시군에서는 보호복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사용방법 등 소규모 대응 훈련을 할 계획이다.

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간 생물테러 신속대응반 23개 반을 운영하고, 테러에 대비한 방역물자와 치료제 등 비축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체육행사가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co.kr

## 이정후, 필라델피아전서 161km 공략해 적시타

2루타 포함 멀티히트...샌프란시스코는 3연승 무산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타격감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적시타와 장타를 때려내는 등 멀티히트한 경기(2안타 이상)를 작별

해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정후는 16일(한국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벌어진 2025 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MLB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세 차례 삼진을 당하는 등 5타수 무안타에 그친 이정후는 이날 1타점 적시타와 2루타를 날려 하루만에 침묵을 깼다.

시즌 9번째 2루타를 생산했고, 타율은 0.322에서 0.333으로 올랐다.

1회 2사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왼손 선발 투수 헤수스 루자르도의 높은 직구에 방망이를 휘둘렀으나 1루수 땅볼에 그쳤다.

4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섰지만, 볼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루자

르도의 낮은 스윙파에 방망이가 헛돌며 삼진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세 번째 맞대결에서 장타 본색을 드러냈다. 6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후는 루자르도의 스윙파를 잡아당겨 우익선상 2루타를 폭발했다.

이후 마운드에 오른 구원 투수 오리온 커커밍이 폭투를 범한 사이 3루에 도달한 이정후는 월터 플로레스의 유격수 땅볼 때 홈을 통과했다.

이정후는 8회 찾아온 찬스도 놓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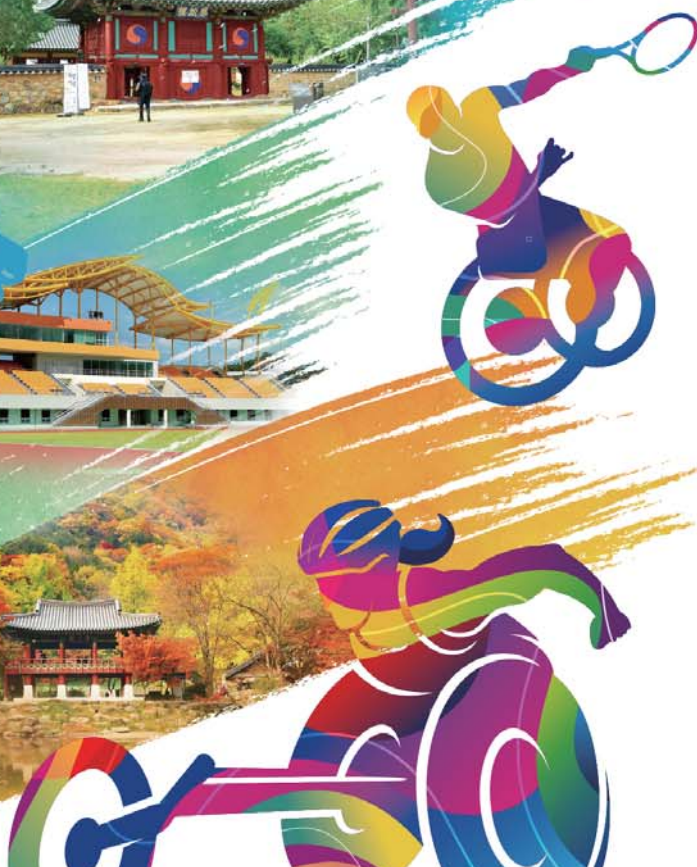
무사 1, 3루에서 원본 볼펜 투수 호세 알바라도의 시속 160.9km 싱커를 받아쳐 1타점 우전 안타를 쳤다. 그러나 후속타 볼발로 추가 진루에는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12승 5패)는 이정후의 적시타를 앞세워 4-6으로 추격했으나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아 패배를 떠안았다. 3연승 도전도 실패했다.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